

중 국

[판례 분석]

전자도서 온라인 판매 및 클라우드 링크에 의한 침해

2026. 10. 28.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도서에 대한 저작권을 수권받은 권리자의 권리귀속은 수권 문서와 실제 출판물의 도서명, 편집자, 저자 등 식별정보의 대응관계 및 반대증거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며 전자도서를 판매하면서 클라우드 링크를 제공하여 불특정 공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저작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

1. 현황

전자도서와 같은 디지털 저작물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체에 파일을 직접 게시하지 않고 외부 클라우드 저장공간의 링크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유통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여부는 파일이 어느 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자체보다 피고의 행위를 통하여 공중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형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본문에서는 타인의 도서와 내용이 일치하는 전자도서를 무단으로 온라인 판매 및 클라우드 링크 방식으로 판매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를 통하여 도서 저작물의 저작권 이용허락 상황에서 수권 자료와 출판물 사이의 대응 관계 그리고 무단 제작된 전자도서의 온라인 판매 및 링크 제공 행위의 침해 판단 기준을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6)渝0103民初207*号
	2심	(2026)渝01民终9644号
관할 법원	1심	충칭시 위중구 인민법원(重庆市渝中区人民法院)
	2심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重庆市第一中级人民法院)

당사자	A 회사		1심: 원고	2심: 피상소인
	B 스튜디오		1심: 피고	2심: 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A 회사가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B 스튜디오가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3.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B 스튜디오의 법적 책임		
	2심	1. A 회사가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B 스튜디오가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3. 1심 법원이 확정한 배상금이 적절한지 여부		
판결 결과	1심	1. A 회사는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 2. B 스튜디오는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음. 3. B 스튜디오는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12,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2심	상소기각, 원심유지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権法) 제10조, 제12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7조 ·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害信息网络传播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제3조			
최종 판결일	2026년 8월 21일			

(1) 사건 개요

A 회사는 <IELTS 기출문제 해설> 시리즈 22권(이하 "사건 도서"라 함)에 관하여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자로부터 출판·발행 및 정보네트워크전파권 등의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받았음. 한편 B 스튜디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건 도서에 대응하는 PDF 형식의 전자도서(이하 "분쟁 전자도서"라 함)를 판매하였음. A 회사가 해당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에 B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Y 클라우드 링크를 통하여 분쟁 전자도서를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A 회사는 B 스튜디오가 무단으로 분쟁 전자도서를 판매하고 Y 클라우드 링크를 통하여 불특정 공중이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사건 도서에 관한 자신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B 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① 원고의 주장

A 회사는 자신이 사건 도서에 관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등 관련 저작권을 적법하게 수권받았고 자신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B 스튜디오가 운영하는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점포에서 판매된 전자도서의 내용이 사건 도서와 일치하고, 구매자가 B 스튜디오가 제공한 Y 클라우드 링크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분쟁 전자도서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음.

② 피고의 주장

B 스튜디오는 A 회사가 제출한 수권서와 합법 출판물만으로는 수권의 대상이 된 저작물과 사건 출판물이 동일한 저작물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A 회사는 원저작자가 아닌 승계적 권리자에 불과하므로 작품에 표시된 성명에 따른 저작권자 추정만으로 권리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정품 도서와 분쟁 전자도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야 하는데 1심 법원이 이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양자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침해사실의 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③ 핵심 쟁점

상기한 양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실제 판단사항을 종합하면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 a. A 회사가 사건 도서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b. B 스튜디오가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c.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B 스튜디오의 법적 책임

(3) 법원의 판단

1) 사건 도서에 대한 권리 귀속

[요약] 수권계약, 수권서와 사건 출판물에 기재된 저작물명, 편집자, 저자 등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반대증거가 없으므로 A 회사가 사건 도서에 대한 관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됨.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된 초고, 원본, 합법 출판물, 저작권등록증서, 인증기관의 증명 및 권리 취득계약 등이 저작권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음.

B 스튜디오는 A 회사가 사건 도서의 원저작자가 아니고 수권문서가 가리키는 저작물과 제출된 출판물이 동일한 작품이라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A 회사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A 회사가 제출한 <저작권대리계약>, <수권출판설명>, <도서대리출판계

약> 및 출판물을 검토한 결과 수권 문서에 기재된 사건 도서의 명칭, 편집자, 저자 정보가 실제 출판물과 일치하므로 이러한 자료들이 A 회사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초보적 증거를 형성함.

따라서 이를 뒤집을 반대증거가 없는 이상 A 회사가 적절한 수권을 받아 사건 도서에 관한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포함한 관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사건 도서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함.

2) 전자도서 제공행위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여부

[요약] 사건 도서와 분쟁 전자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며 이 상황에서 B 스튜디오가 적절한 수권 없이 전자도서를 판매하여 불특정 공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가 성립함.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3조에 따라 네트워크 이용자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허락 없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관리자가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가 성립함. 특히 저작물을 네트워크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파일을 공유 상태로 설정하거나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공중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운로드·열람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됨.

본 안건에서 사건 출판물과 분쟁 전자도서를 비교한 결과 양자의 내용이 일치함. B 스튜디오는 1심 법원이 양자의 내용이 완전히 중복된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B 스튜디오가 입증하지 못한 데 따른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B 스튜디오가 허가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점포에서 분쟁 전자도서를 판매함으로써 불특정 공중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분쟁 전자 도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해당 행위는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함.

3) 법적 책임

[요약] 사건 도서의 수량, 유형, 영향력, 가격, 분쟁 전자도서의 판매량 및 판매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 스튜디오는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12,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저작권> 제54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의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사용료를 참조할 수 있으며 실제 손실, 위법소득, 권리사용료를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정황에 따라 법정배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본 안건에서 A 회사의 실제 손실, B 스튜디오의 침해이익 및 사건 도서의 권리사용료를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 이에 사건 도서의 수량, 유형, 영향력, 정품 사건 도서의 가격 및 분

쟁 전자도서의 판매량과 판매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권리행사를 위한 합리적 비용 총 12,000위안을 배상금으로 정함.

3. 판례분석

1) 수권문서와 출판물의 대응관계를 통한 권리자격의 증명

① 판단기준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는 합법 출판물, 저작권등록증서, 권리취득계약 등을 저작권 관련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 또는 관련 제작물에 표시된 성명에 대해서는 반대증거가 없는 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 판례에서 2심 법원은 B 스튜디오가 성명표시에 따른 추정 규칙의 적용을 다투었음에도 그 적용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해석>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권문서와 실제 출판물의 도서명, 편집자, 저자 정보가 일치하여 초보적 증거를 형성하고 이를 뒤집을 반대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A 회사의 적법한 수권과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하였음.

② 판단 방법

B 스튜디오는 A 회사가 원저작자가 아니므로 출판물의 성명표시만으로 권리를 추정할 수 없고 수권서가 가리키는 저작물과 실제 출판물이 동일하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법원은 A 회사가 제출한 저작권 대리 계약, 수권출판설명, 도서대리 출판계약 및 출판물에 비추어 수권 문서에 기재된 도서의 명칭, 편집자, 저자 정보가 사건 도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였음. 법원은 이러한 식별정보의 일치를 A 회사의 권리관계를 뒷받침하는 초보적 증거로 평가하였음.

그 후 법원은 A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리 귀속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B 스튜디오가 위 증거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반대증거를 제출하였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음. 그 결과 A 회사가 먼저 수권문서와 사건 도서 사이의 대응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B 스튜디오가 이를 반복할 구체적인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A 회사의 적법한 수권 및 권리행사 자격을 인정하였음.

③ 법적 중요성

본건은 원저작자가 아닌 수권받은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권리자격의 증명이 반드시 하나의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권계약, 수권서, 합법 출판물 등 복수의 자료 사이의 대응 관계를 통하여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권리취득계약과 합법 출판물을 저작권 관련 증거로 인정하는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의 증거규칙을 구체적인 수권 관계에 적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B 스튜디오가 성명표시에 따른 권리자 추정의 적용을 문제 삼은 데 대하여 2심

법원은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수권 문서에 기재된 도서명, 편집자, 저자 정보와 사건 도서의 해당 정보가 일치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수권 문서가 사건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음. 이는 원저작자가 아닌 수권받은 권리자의 권리자격을 판단할 때 수권 문서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수권 대상과 실제 저작물 사이의 객관적인 대응 관계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전자파일의 동일성과 정보네트워크상 제공행위를 구분한 침해 판단

① 판단기준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3조는 허락 없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권리자가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저작물을 네트워크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파일을 공유 상태로 설정하거나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정보네트워크에 두고 공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운로드·열람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저작물의 제공행위로 봄.

따라서 본건에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B 스튜디오가 분쟁 전자도서를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불특정 공중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였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② 판단방법

본문 판례의 논증을 구분하여 보면 2심 법원은 먼저 사건 출판물과 분쟁 전자도서를 비교하여 양자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음. B 스튜디오는 1심 법원이 충분한 대조 없이 내용의 완전한 중복을 인정하였다고 다투었으나 이를 뒤집는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어 법원은 B 스튜디오가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점포에서 분쟁 전자도서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Y 클라우드 링크를 통하여 PDF 파일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정보네트워크상 제공행위와 연결하였음.

③ 법적 중요성

본문 판례에서 2심 법원은 분쟁 전자도서가 사건 도서와 내용상 일치한다는 점과 B 스튜디오가 이를 온라인 점포에서 판매하여 불특정 공중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그 외에도 법원은 구매자는 해당 상품을 구매한 후 B 스튜디오가 제공한 Y 클라우드 링크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분쟁 전자도서를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클라우드 링크와 비밀번호는 온라인에서 판매된 분쟁 전자도서를 구매자가 실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수단으로 기능하였음. 2심 법원은 이러한 링크 제공행위를 판매행위와 구분된 별도의 침해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B 스튜디오가 분쟁 전자도서를 판매하여 공중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

과 장소에서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행위로 포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클라우드 링크 제공 자체의 독립적인 법적 성질이나 별도의 책임 유형을 판단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게임 커뮤니티 관리자가 바이두 클라우드 링크로 무단으로 유료인증이 제거된 게임을 공유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 사례¹⁾에서도 바이두 클라우드를 통한 소프트웨어 공유가 문제 되었고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사법해석 제3조 제2항이 관련 규정으로 적용되었음.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바이두 클라우드를 통한 게임 파일의 공유행위 자체가 정보네트워크상 제공행위로 판단된 반면 본문 판례에서는 클라우드 링크 제공이 전자도서 판매와 결합된 전달수단으로 나타났고 2심 법원도 클라우드 링크 제공 행위의 법적 성질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두 사건 모두 클라우드 링크를 통하여 저작물이 이용자에게 전달된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링크를 통한 공유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제공행위로 판단하였는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는 클라우드 링크가 독립적인 공유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와 온라인 판매의 이행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를 구분하여 정보네트워크상 제공행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교의 의미가 있음.

4. 시사점

본문 판례는 도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수권문서와 실제 출판물의 도서명, 편집자, 저자 등 정보가 일치하고 반대증거가 없는 경우 수권받은 권리자의 권리와 자기 명의의 제소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전자도서를 점포에서 판매하면서 클라우드 링크를 제공하여 불특정 공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정보네트워크전파권상 제공행위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6)渝01民终9644号

(2021)最高法知民终2365号

1) (2021)最高法知民终2365号